

무안군 市 승격 목표 인구 10만명 달성 사활

도청 이전 효과 꾸준히 늘던 인구 지난해 증가세 주춤 인구정책담당 신설...주소 갖기 운동·장학금 등 총력

무안군이 인구 10만명을 유지, 무안시로 승격하는 데 사활을 걸었다. 무안군 현재 인구는 8만2544명으로, 전남도청 이전 효과를 톡톡히 누리면서 지난 5년 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5년 전인 2012년 7만5741명이었던 인구는 ▲2013년 7만9367명 ▲2014년 8만1696명 ▲2015년 8만2236명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다. 전남도청이 들어선 남악(삼향읍) 인구 증가가 전체 인구를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삼향읍 인구는 지난 2012년 2만7279명 이지만 ▲2013년 3만2004명 ▲2014년 3만5384명 ▲2015년 3만6866명 ▲2016년 3만

7359명으로 5년 간 1만80명이나 늘었다. 반면, 무안에서는 무안읍의 경우 5년간 (2012~2016년) 368명 줄었고 일로읍 692명, 몽탄면 394명, 청계면 553명, 현경면 557명, 망운면 205명, 해제면 552명, 운남면 391명 등으로 전 지역 인구가 줄었다. 하지만 인구 증가가 둔화되면서 '10만명 달성'을 낙관할 처지는 못된다. 우선, 남악 인구 증가세가 멎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5년 남악 인구는 전년도에 견줘 1482명이나 늘었지만 지난해는 고작 493명 증가에 머물렀다. 올 6월 인구는 3만8072명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출생보다 사망자가 많은 현상은 그대로인 반면, 전입이 전출보다 많았던 추이는 역전됐다. 당장, 지난 5년간 무안 지역 전입 인구는 ▲2012년 8508명 ▲2013년 1만2275명 ▲2014년 1만1335명 ▲2015년 9284명 ▲2016년 8793명이다. 전출 인구는 ▲2012년 8438명 ▲2013년 8557명 ▲2014년 8896명 ▲2015년 8681명 ▲2016년 8914명 등으로 집계됐다. 결국, 지난해의 경우 최근 5년 간 처음으로 무안을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아진 셈이다. 귀농·귀촌 인구도 2014년 86가구에서 2015년 297가구로 급증했다가 지난해는 110가구에 그쳤다. 무안군이 최근 인구정책담당을 신설, 인구정책의 총괄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

토록 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무안군은 '2020년 인구 10만 달성'을 목표로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교육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등 분야별 중점 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1부서 1특성화 시책 발굴 ▲무안브랜드쌀, 쓰레기봉투, 관광지 관공리, 문화상품권 등 세대별 2만원 상당 전입 기념품 지급 ▲전입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 지급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구 늘리기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인구 유입에 힘쓴 직원들을 포상하는 계획도 수립중이다. 박준수 무안군수 권한대행은 "인구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인구 10만명을 달성, 무안시로 승격하는 초석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임동현기자 jdh@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교실 호평

무안군이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를 열고 지역민 건강 증진에 팔을 걷어붙였다. 무안군은 최근 남악복합주민센터에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 남악 주민들의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중이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 건강관리, 증진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정상 체중 만들기 행복한 운동교실', '줌바댄스', '즐거미

행복해지는 재활건강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을 배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체험시설을 운영해 지속적인 관리와 건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실문조사를 거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악·부안=김민준기자 jun@

영광군 내일 김제동 초청 토크 콘서트

영광군은 오는 25일 방송인 김제동씨를 초청, '공감과 소통을 통한 청렴'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연다. 김씨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유의 공감능력을 갖춘 진행으로 젊은층 사이에 소통과 힐링의 아이콘으로 인정

받고 있다. 영광군은 반부패 청렴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청렴연구공연과 청렴실천결의대회를 여는 등 군민 청렴문화 운동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함평 돌머리해수욕장 야경 명소 인기

갯벌탐방로 LED 조명 설치 관광객 북적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이 야경 명소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 23일 함평군에 따르면 돌머리 연안 휴지 개발사업에 따른 갯벌탐방로(길이 405m)가 최근 완공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탐방로는 목재 데크로 조성한데다,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입혀 다양한 색채로 밤바다를 수놓는 장면이 연출된다. 게, 해조류가 살아 숨 쉬는 갯벌이 속살을 드러내며 광활하게 펼쳐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신안의 숨은 매력 찾기' 사진 공모전

내달부터 10월 31일까지 작품 접수

신안군이 지역 명품 관광지를 담은 사진 공모전을 연다. 올해로 3회째인 공모전은 '5S 신안군의 숨은 매력 찾기'라는 주제로,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디지털 사진 뿐 아니라 스마트폰 사진, 드론과 UCC 부문까지 추가해 참여도를 높였다. 공모전은 지역의 숨겨진 명품 관광지를 발굴,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SECRET(신안의 숨은 명소) ▲SEA(신안의 아름다운 바다·해변·갯벌) ▲SPORTS(신안의 축제·레저스포츠·문화활동) ▲SALT(신안군의 특산물) ▲SUMMER(신안 여름철 휴가사진)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대상 작품에는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지난해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 <신안군 제공>

신안군 '독살'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되나

郡, 공모 신청 지정 절차 착수

신안군이 원시시대부터 이어져온 전통 고기잡이 방식인 '독살'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신청,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해양수산부의 '2017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계획'에 따라 신안에 남아있는 '독살'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군은 이달 28일까지 해수부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으로, 목표대 도서문화연구원을 통해 관련 용역이 진행중이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해양수산부가 어촌의 중요한 가치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첫 해에 보성 뱀배어업, 제주 해녀어업, 경남 남해 죽방렴어업이 지정됐다. 지난해에는 신안 갯벌 전일염어업이 추가돼 모두 4개가 지정됐다.

독살은 돌로 담을 쌓아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 썰물 때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한

물고기를 건지는 어법으로 '독살' 또는 '돌밭'로도 불린다.

독살 축조, 보수, 채집 활동을 마을 단위로 하는 협동 방식의 전통 어업인데다, 신안 안좌, 자은, 암태 일대 '독살'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신안군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계기로 독살을 민속 자원으로 복원, 주민 소득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중요어업 유산으로 지정되면 유산자원 정비·복원, 환경 정비·자원보호,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등을 위해 3년간(2018~2020년) 8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신안군 관계자는 "전통 어업 자원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해 어촌 방문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파랑새 희망우체통' 개설

신안군 복지사각 발굴 나서

신안군이 지도읍 일대에 '파랑새 희망우체통'을 개설,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섰다.

지도읍사무소에 마련된 파랑새희망우체통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와 사연을 써 넣으면 복지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행정력이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 소외계층을 주민들과 함께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미도 엿보인다.

지도읍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역민들을 알리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남구 주월동 대로변접 병원최적합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7층건물 대지 994㎡ 건물 2,028㎡ 매매 45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사우나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1-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하1-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백3십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계림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하1-4층 대지 949.00㎡ 건물 827.74㎡ 매매 30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1-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 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65억 근린시설 스포츠타운 최적합
- ★ [토지] 광산구 송정역(KTX) 인근대로변 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관광호텔주변 카페거리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공장, 물류창고, 주택 적합
- ★ [토지] 서구 풍암동 녹지지역 입자26,139㎡ 매매 평당7만
- ★ [토지] 북구 삼각동 1중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10억 조정가능 공장, 물류창고, 주택 적합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자연녹지지역 123,868㎡ 매매 평당5만

공인중개사 김은희 010-6243-3704